

# 송하진 '희망대화' 고창군에서 시작

### 아름다운 마을 · 상하농원 · 구시포항 찾아 애로사항 청취 · 의견 수렴... 3월까지 진행

송하진 도지사가 도민들과 만나 절실하게 묻고 현장에서 직접 답을 구하기 위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에 나섰다.

송 지사는 도정 3대 핵심사업과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군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10일 고창군을 찾은 송 지사는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장, 이호근·장명식 도의원과 기관사회단체장, 분야별 직능단체 대표, 현안사업장 관계자 등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인 상하면 '아름다운 마을'을 방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들과 만나 절실하게 묻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기 위해 고창군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를 시작했다.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송 지사는 "아름다운 마을이 동물농아리를 만들어 전국 장애인 문화예술인 대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북도에서도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인권 및 또 단위 장애인 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복지관 확대운영 등으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하농원을 찾아 상하농원 박재범 대표, 매일유업 조성형 부사장, 주 청매 김재주 대표, 주 사업당부드 조해주 대표 및 농업인들과 희망대화를 진행하며, 산림농정과 토탈관광사

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후 "상하농원은 6차 산업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혁신적 모델로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인, 사람 찾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산림농정'의 성공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하농원이 개장 9개월 만에 7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고창군이 생태관광의 중심지가 되는데 큰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채용과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갖추고 있어 도에서

도 이러한 노하우들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은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명실상부한 세계유산 도시로 정당한 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 그리고 복분자와 풍천장어, 고창수박, 멜론 등 명품 농특산물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먹거리들을 연계·결합해 산림농정과 토탈관광을 실현하면서 찾아오고 싶고 와서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고창군에 차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는 2월 중에는 5개 시·군을 방문할 예정이며, 3월 중에는 진안군을 시작으로 9개 시·군 희망대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부안 묶은 '장인과 내 장비구니·내 식탁 차리기'

##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사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17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사업'에 군산시와 부안군 관광자원을 묶은 '장인과 함께하는 내 장비구니, 내 식탁 차리기' 관광상품이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군산시와 부안군의 전통시장에서 장비구니, 농촌마을 장인과 함께 음식 만들기, 지역의 관광명소 등을 방문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며, 국내와 국외, 당일과 숙박으로 세분화해 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깨끗한 자연에서 지란 식재료를 직접 내 손으로 플라 음식 장인과 함께 만드는, 전통적인 맛과 맛 체험과 함께 전통문화체험이 어우러진다.

이 상품은 중국,일본과 관련 있는 관광지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동아시아 3국 간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잘 보존된 생태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글로벌육성사업 선정 상품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이 지원된다.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국제 홍보 채널(해외 문화원, 홍보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가능해 세계를 대상으로 전북 관광 브랜드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군산시, 부안군과 함께 팜투어를 실시하고 올해 선정된 전담여행사(6개사)를 활용해 모객을 추진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 도, 지방세외수입 평가 '우수기관상'

전북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결과 1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도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전자예금입시스템을 도입해 17개 주요은행의 세외수입 체납자 명의의 예금에 압류를 실시해 1억 3,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차량 책임보험미가입,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의 과태료 징수 위해 상·하반기 과태료 체납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함으로써 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세외수입의 안정성, 효율성, 노력성 등 10개 분야별 분석지표에서 상위 20% 이내로 체계적인 체납금 징수관리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안재용 기자

# 전북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본격 추진한다

### 토탈관광 인프라 구축 위해 관광특구사업 등 8개 분야 50개 사업 859억원 투자

전북도는 토탈관광 인프라 구축 위해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총 50개 사업 859억원을 투자하는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관광지 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거점지역형사업, 관광관광개발인 사해안권 및 지리산권·서부내륙권과 지역관광개선훈 사업, 관광특구사업 등 8개 분야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분야별 세부 계획을 보면 우선 관광지 개발 사업은 군산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05억원,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진안 마이산자

연치유 신비체험사업 등 33개 사업에 537억원, 광역관광개발사업인 서해안권은 부안 변산지구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67억원, 지리산권은 남원·장수 관광개발공동연계사업에 8억원을 투자하고, 서부내륙권은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93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관광개선훈사업으로 추진하는 고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 사업에는 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거점지역형 지원사업은 부안 줄포만해안체험탐방로 건설 등 2개 사업에 30억원을, 정읍 및 무주 관광특구에

대해서도 10억원을 투자한다.

50개 사업 중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완주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개발사업 정비 등 28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창 훈몽재 선비의 길 조성 등 22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2월까지 올해 사업분 계약을 마치고 동절기가 풀리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한다.

그리고 오는 22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도와 시군 관광개발 관련 공무

원 워크숍을 개최해 관광자원개발 등의 사업 추진 방향 제시 및 시군의 애로사항 청취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를 초청해 2018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 전 코칭도 계획 중에 있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 세종시, 충남의 관광개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2017년 사업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내용, 2018년 신규사업 신청관련, 지자체 애로사항 청취 등이 계획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및 하반기에 도와 시군의 연계 협력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쟁점사항 등을 사전에 해결하는 등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전주 서부(효자)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승하차 가능

서부(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에서 10일부터 승하차가 가능해진다.

지난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이용객들이 맞은편에서 하차를 하지 못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버스조합과 관련업체간 협의를 진행하고 서남권 지역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직행버스의 서부(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맞은편에서 10일부터 하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 전북도-시군 안전정책 조정회의 개최

도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관련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안전대진단 등 재난안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도와 시군이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반 편성 등 협업을 더욱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에서 안전점검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시군까지 지원해 지난해 10%에서 15%까지 민간전문가 점검 참여 확대,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 및 실질적인 점검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대대적인 홍보강화를 통한 도민참여 붐을 조성, 도민과 함께하는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7-94호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정읍시 고시 제2013-87(2013.11.29)호로 지정된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정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명 칭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 위 치 :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 면 적 : 232,000㎡
- 사업시행자 : 정읍시

#### 2. 주민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17년 01월 24일 ~ 2017년 02월 13일
- 공람장소 :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소성면사무소
- 내 용 : 배수시설 추가 변경

#### 3.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063-539-5672), 소성면사무소(☎ 063-539-7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정읍시장